

사우디·日本·美国 합작정유공장 건설의 배경과 전망

사우디아라비아 日本 美国간의 합작정유공장건설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日本의 日本石油 日本鑛業 아라비아石油 등은 사우디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美国의 메이저인 칼텍스社와 공동출자해 사우디와 日本에 각각 하루 30만, 15만배럴의 정제능력을 갖춘 정유공장을 건설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빠르면 오는 92년에 착공될 예정인 이 정유공장의 총투자금액은 1조円으로 각사의 지분은 아람코 50%, 日石 20%, 日鑛 15%, 칼텍스 10%, 아라비아石油 5%. 사우디의 알주배일에 건설되는 정유공장은 15만B/D규모가 2계열로 설립되고 日本의 야마구치縣 구다마쓰에는 15만B/D규모의 1차 정제설비를 비롯, 2차정제설비까지 갖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일부는 해외로 판매되지만 구다마쓰정유공장제품은 모두 日本내에서 소화될 예정이다. 사우디측 정유공장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 착공, 3년 이내에 완성할 계획이며 구다마쓰정유공장은 환경영향평가등으로 2, 3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식조인은 기업화조사(FS)를 거쳐 연내에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日本석유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석유수급립박에 대처〉

이 건설계획은 총투자액이 1조엔이라고 하는 규모의 방대함뿐만 아니라 걸프전쟁후의 불안정한 석유정세 속에서 3개국의 유력자본이 땀어졌다는데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또한 이번의 국제적합의가 日本의 석유 장기안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산유국, 특히 매장량이 풍부한 사우디와의 관계강화는 日本석유회사들에 있어서는 수년에 걸친 과제였다. 日本石油은 작년 봄부터 단독으로 사우디와의 합작정유공장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동년 8월의 걸프

사태발발로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후원하여 왔던 것은 통산성. 日本石油은 끝까지 단독계획을 지향하였으나 통산성의 조정으로 사우디에서 30년간 원유생산을 계속해왔던 아라비아石油, 자원개발에 관심이 큰 日本鑛業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테우치(建内保興) 日本石油회장의 사우디방문회담에 세세한 지원을 해왔던 통산성은 구체적인 정책유도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지난 5월 29일 정리된 석유심의회 석유정제설비문제 소위원회회의 보고는 산유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에 의한 설비증강은 우선적으로 취급한다고 하는 방향을 명백히 했다. 이 정도까지 정부와 기업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사우디와의 관계강화를 추구한 것은 90년대 중반을 예측해서이다. 쿠웨이트, 이라크가 언제부터 원유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가에도 기인하지만, 세계적인 수요증대, 소련과 美国의 원유생산량 감소등으로 볼 때, 수년후에는 원유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 대산유국인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세계적인 정제능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도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美国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최근 2, 3년간의 정제설비의 가동률은 80~90%에 달하고 있다. 반면 신설계획은 적어 중·장기적으로 설비부족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할 공산이 크다. 사우디에게도 역시 아시아는 중시하고 있는 시장이다. 아시아지역은 성장속도가 빨라 앞으로 안정적인 판매선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걸프위기가 최고조였던 작년 11월말에 韓國의 雙龍그룹과 합작으로 정제설비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는 의욕도 보였다.

日本은 아시아 최대의 시장으로 작년 1월에는 사우디의 나제르 석유상본인이 일본을 방문, 석유회사와 상사의 탐매니지먼트들과 면담하여 코스모석유등과 직접거래(DD)계약을 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사우디는 국제석유자본(메이저)을 중간에 두고 소

비국의 기업과 거래할 의욕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제 까지 사우디에는 아람코가 국유화되기전부터 관계가 깊은 엑슨, 모빌, 텍사코, 셰브론 등의 美國계 메이저가 깊이 들어와 있으며, 英國계의 로얄더치셀도 합작 정유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소위 메이저의 성역인 것이다.

메이저의 저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우디가 소비국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열심인 것은 석유의 상류부문(생산)에서 하류부문(정제·판매)까지의 일관체제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日本, 사우디 쌍방에 있어서 메이저계의 칼텍스(텍사코와 셰브론의 자회사)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우디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시아에 판매하는 데에는 칼텍스의 판매력을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그 위에 메이저의 자회사와 함께 합작을 구성한 것은 日本의 석유회사로서는 메이저의 성역인 사우디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마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日本과 사우디의 생각이 일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합작의 정치적·사회적 의미〉

이러한 프로젝트는 산유국과 소비국의 관계를 안정,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보가 될 수 있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복잡미묘한 요소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사우디측이 기업화조사(FS)의 착수에 합의한 것은 단순히 원유와 석유제품의 세계적인 판매세어(시장점유율)를 확대하는 이상의 전략적 사고가 있다고 보여진다. 석유를 통하여 日本 美國등과 같은 선진공업제국과의 경제적·정치적인 기반을 한층 강화, 불안정한 中東에 있어서의 자국의 안전보장체제를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합작사업계획에 있어서의 美國기업(칼텍스)의 참여배경에는 걸프전쟁을 통한 사우디의 美國에 대한 신뢰, 美·사우디간의 특별한 관계의 심화가 투영되어 있다. 한편 美측에서도 사우디에서 전부터 석유이권에 깊이 관여해 왔던 텍사코, 셰브론의 美계 국제석유자본이 이 기회에 사우디 및 아시아에서의 석유사업 권익확대를 도모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으로 대표되는 만안산유지

역에서의 끊임없는 불안정체제하에서 석유공급을 확보하는 데에는 美·사우디동맹을 중심으로 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의 틀이 계속 기능하는 것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 日本石油, 日本鑛業, 아라비아石油의 日本측이 사우디측에 이번 형태의 제휴를 제의한 것도 사우디의 제요청에 더해, 美·사우디관계를 배려하는 것이 앞으로의 석유공급안정과 수익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제까지 日·사우디간의 절충에는 당초부터 자원에너지청의 간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쌍방에 정치적 중개에의 강한 요청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日本측에서는 中東석유에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우디측의 이번 석유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에 대하여 같은 정도의 정치·외교상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지는 의문시된다.

〈업계의 구심력으로서〉

이번 합작건설계획에 대한 日本石油의 판단의 이면에는 사우디와의 합작을 국내업계제편의 시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 日石은 국내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으나 17%에 지나지 않는다. 원매회사들은 세어의 확보를 최대의 경영과제로 삼고 있으나, 주유소측은 박리다매에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주유소의 수익이 악화되면 원매회사가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어가 큰 원매회사가 강한 판매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日石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세어로는 무리라는 것도 자각하고 있어, 한번에 세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계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점에 있어, 사우디와의 합작으로 원유의 장기적인 조달력이 높아져 위기대응력이 강해지면 업계내에서 日石으로 구심력이 옮겨 갈 것은 명백하다. 日石은 '91년 3월 期에 1조1천억엔의 여유자금을 자랑하고 있다. 그 용도는 이번 사우디와의 합작을 시작으로 석유개발과 국내판매부문의 정비 등 여러가지이다. 日石은 이러한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박리다매의 경쟁속에서 석유업계의 리더로서 부상하려는 장기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첫번째 시도가 사우디와의 합작인 것이다. ●

〈崔 鍾 鎬〉